

# 시민이 주인 되는 '광주시민의 날'

### 21일 기념식...앞자리는 시민에게, 시장 등은 중간에 정책평가박람회·시민체험형 안전문화한마당 등 개최 제16회 세계인의 날·외국인 유학생의 날 행사도 병행

'제58회 광주시민의 날'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1일 중외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58회 광주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이 모여 체험하고, 공감하고, 즐기는 '시민의 축제'로 진행된다.

광주시민의 날인 5월 21일은 1980년 5월 당시 광주시민의 항거에 계엄군이 퇴각한 날인데, 광주시는 이를 기리기 위해 2010년 11월 1일이었던 시민의 날을 5월 21일로 변경했다.

올해 시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 분위기부터 확 바뀐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민이 주인공인 만큼 무대 앞자리는 시민에게, 시장을 비롯한 초청인사들은 객석 중간 자리에 앉는다. 상징적 퍼포먼스 이긴 하지만,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실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기념식은 21일 오후 6시 20분 자매도시 베트남

에양성 공연단의 식전공연으로 막을 올리고, 개막선언과 함께 시립합창단의 '광주시민의 노래' 합창이 이어진다. 광주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바쳐 투쟁했던 '5월의 나'들을 추모하고, 시민의 날 주제인 '가족' 기념영상 상영, 광주시민대상 시상식이 열린다.

올해 광주시민대상은 사회봉사부문 윤풍식 ㈜국민그룹 회장, 문화예술부문 정혜경 대한무용협회 광주시지회 고문, 체육부문 광주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탁구팀, 지역경제진흥부문 김형석 남해중합건설㈜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행사는 또 광주군공항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송갑석·이용민·조오섭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와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시교육감의 축하 등으로 이어진다. 가수 선우와 광주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은 '아름다운 나라'를 부르며 시민의 날을 축하한다.

마지막으로 화려한 불꽃쇼와 함께 가수 10cm·김기

태다비치·김동규·고아라·크라잉넛 등 국내 정상급 K팝 스타들과 성악가의 축하공연도 예정돼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150만, 가족이 웃습니다'를 주제로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광주시에 하고 싶은 메시지 쓰기 ▲가족사진 찍어주기 ▲나의 인권 바로알기 ▲문화공연 즐기기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부대행사는 가족참여형 프로그램인 '가족사진관'부터 가족에게 편지보내기, 추억의 보물찾기 등이 준비돼 있다. 제16회 세계인의 날과 외국인 유학생의 날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외공원에서 열린다.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민선 8기 광주시정을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정책평가박람회와 시민체험형 안전문화한마당 행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80년 5월의 광주정신은 국가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저항정신에서 비롯돼 '나'와 '연대'로 승리의 위대한 역사를 썼고,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는 힘도 '가족'에 있었다'며 "150만 광주시민 모든 가족이 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활짝 웃으며 더 나은 내일로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드론 타고 남해안 절경 구경"

### 전남도, 남해안권 관광벨트·긴급수송 등 항로 개설 연구용역 추진 국토부, 고흥에 346억 투입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증 기반 구축

2025년이면 전남 남해안 절경을 드론에 올라타 구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흥에 오는 2024년까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MA) 실증 기반시설을 구축해 기체의 안정성 및 통합 운영성을 검증하고, 전남도는 그 항로를 개설하는 연구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18일 "도심항공교통(UMA) 조기 상용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긴급 수송 분야 등과 연계한 '전남형 도심항공교통(UMA) 항로 개설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형 도심항공교통 항로 개설 연구' 용역은 2024년 4월까지 1년간 이뤄진다. 대한항공과 PNU드론, 대우건설 등이 참여해 여수·고흥·신안 일원을 대상 지역으로 도심항공교통 항로 개설, 수직 이착륙 비행장(버티포트) 최적지 분석, 중대형 드론을 활용한 회랑의 적합도 실증을 추진한다.

대한항공과 PNU드론은 장애물 분석을 통해 예비항로를 설계하고, 통신전파 및 기상 환경을 분석·적용해 최적의 항로를 선정한다.

대우건설은 기체 진·출입로 구조 설계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지반, 기상, 전파 환경을 분석, 수직 이착륙 비행장 최적지를 분석한다.

전남도는 이번 과제를 통해 도심항공교통 산업 본격 도입을 위한 선행단계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남형 항로 및 수직 이착륙 비행장에 대한 기술적·환경적 분석을 통해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대비한 본격적인 사전 준비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목

표' 정책 기조와 항후 '국토부 실증·상용화 시범사업' 추진 등을 사전에 대비하고 전남형 도심항공교통 산업 운영체제 기반 구축 마련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남지역 특색에 맞는 도심항공교통 항로 개설을 통해 남해안권 관광과 섬지역 긴급수송·재난 등 미래 신사업 서비스 시장을 발굴하고 도심항공교통 산업이 전남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고흥에 346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MA) 실증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2024년까지 4년간 추진하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MA) 그랜드 챌린지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또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등 7개 연합체, 55개 국내 대기업과 기관 등이 참여해 오는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도심 외 개설지 기체 안전성과 통합 운영성 확인 실증에 나선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궤도 올랐다

### 원 장관 "광주~고흥 고속도 지원" 전남도, 19일 한화그룹과 협약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핵심기지인 고흥에 우주발사체 국가산단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지원을 약속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한화 등 관련 민간기업들도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8일 고흥군청에서 열린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한 '국토교통부-전남도-고흥군 현안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등 직접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감사의 표하며,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현안과 함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또 19일 오전 서울 한화빌딩에서 한화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장관과 김영록 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가산단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남개발공사에서 함께했다.

현안 회의에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국토부-전남도-고흥군-한국토지주택공사-전남개발공사 간 업무협약을 했다. 이어 국토부의 국가산단 조성 지원계획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기본구상 발표가 진행됐다.

전남도의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방안, 이노스페이스의 우주발사체 추진현황 발표에 이어



김영록 전남지사가 18일 고흥군청에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국토부-전남도-고흥군-한국토지주택공사-전남개발공사 간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지역 현안 건의와 토론 등으로 회의는 마무리됐다.

지난 3월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고흥 봉래면 외나로도 일대에 총 3천800억 원을 들여 2030년까지 173만㎡ 규모로 조성된다. 국가산단은 전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핵심사업으로, 클러스터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고흥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 기업 유치는 물론 접근성과 정주여건 개선까지 중앙부처가 직접 나서서 지원하겠다"며 "특히 광주~고흥 우주센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고흥 고속도로 지원 약속에 감사를 표하며, "도에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소멸대응기금 500억원 전액을 투입할 의지도 있

다"고 화답했다.

전남도는 이날 현안 건의를 통해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육성 ▲광주-영암 아우토반 등 광역교통망 국가계획 반영 ▲전남도 트라이앵글 순환철도망 국가계획 반영 ▲남해안 발전을 위한 남해안중항 개발정 설립 ▲전라선 고속철도건설 에타 면제 ▲지방도 사업 중 연륙·연도교 등 총 7건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관련 "국제선만으로 연 90만 명까지 이용하던 무안국제공항이 지난해 4만 6천여 명 수준으로 감소해 불거진 공항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게 돼 안타깝다"며 "광주 민간·군 공항을 일괄 이전해 서남권 전체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 관광 1억명 시대 이끌 전문가 모십니다

### 전남관광재단 대표 공모...30일~6월 2일

"전남 관광 1억명 시대를 이끌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찾습니다"

전남관광재단은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전남 관광 1억명, 해외관광객 300만명 유치 등 전남 관광 활성화를 이끌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제2대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표이사 자격요건은 재단 인사규정(제 15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며 결격사유(제 16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전남도, 전남도의회, 재단 이사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거쳐 복수로 임용후보자를 선정할 뒤 최종 도지사가 임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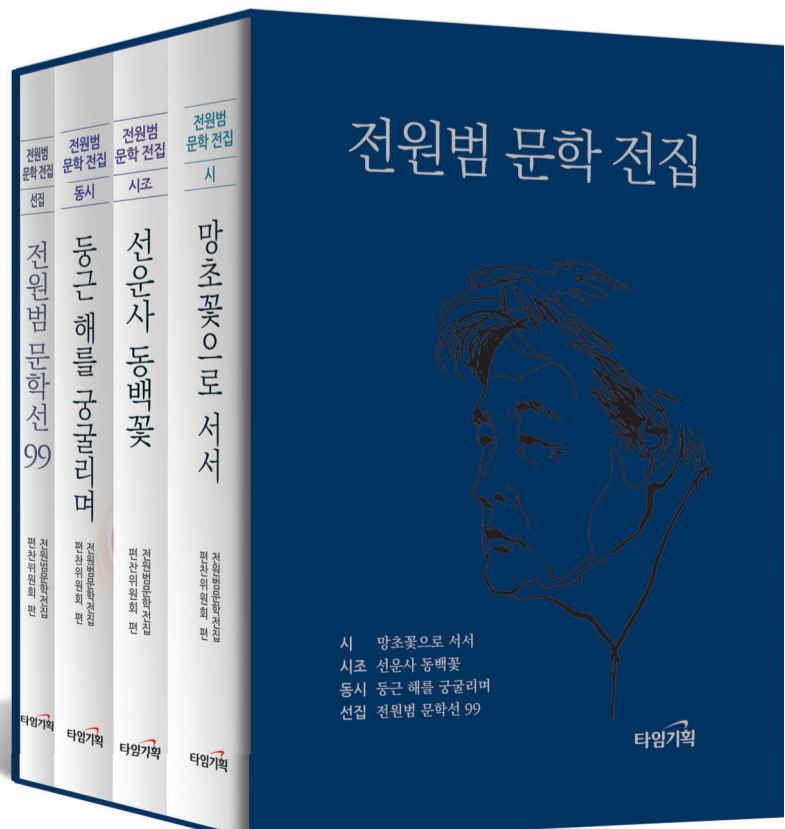
접수는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재단 누리집(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필요서류를 내려받아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재단 경영지원팀(061-802-21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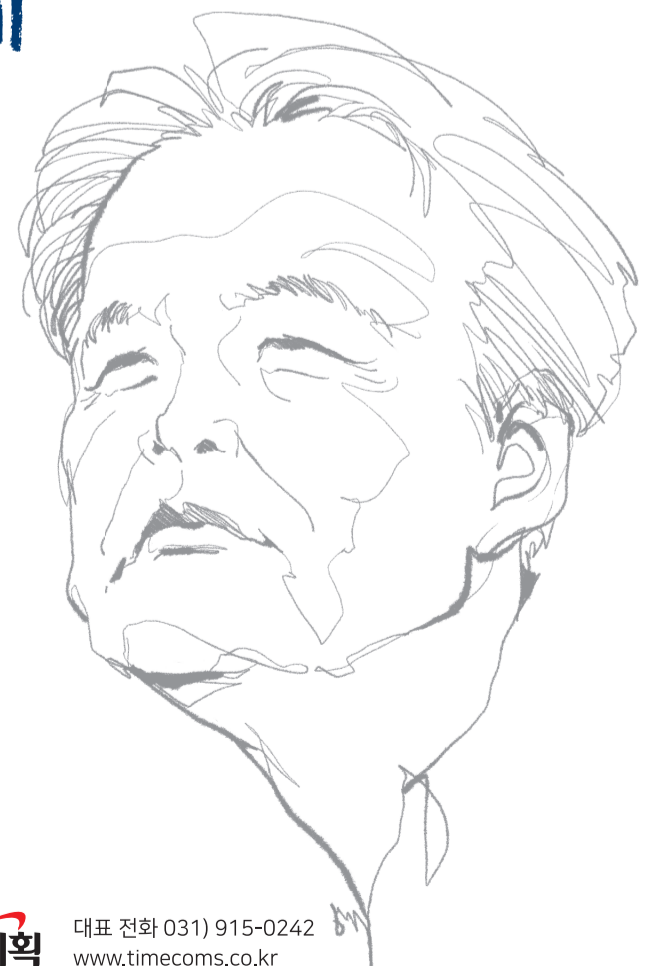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염정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환(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선집 전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